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3강 온전함의 근거 : 말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을 학자들은 두 번째 서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이 전체의 서론인데, 2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고, 12절부터 27절까지가 두 번째 서론입니다. 지난주 시험에 관하여 나누었지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었어요. 두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나누어졌어요. 이 두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진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Move-

자,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다시 시험의 문제를 들고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큼 무력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즉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러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까요?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시험에 드는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짧은 두 구절이지만, 시험의 단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욕심이란, 에피투미아(επιθυμία)라는 말인데요. 정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래 의미는 좀 달라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예요. 식욕, 성욕, 명예욕 등 삶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실존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금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욕심이 죄와 함께 나가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향하는 대상입니다. 누구를,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잘못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옆집에 사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여기에서 '미혹된다'는 단어는 마치 낚시바늘에 걸린 미끼를 보고 다가가서 툭툭 건드려 보다가,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낚시바늘에 입이 꿰어 걸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가요, 그러다가 걸려들어요. 걸려들면, 그다음부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심에 끌려서 가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혹돼요. 걸려들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도권이 바뀌어요. 내 안에 들어온 이 죄라는 놈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이 과정을 '잉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낳는다(τικτεῖ)는 말의 의미는 풀꽃이나 나무에 열리는 작은 열매의 모습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게 되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자, 시험이 왔고, 끌려서 미혹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시험에든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죄입니다. 여기에서 '죄'란 하말타아(ἁμαρτία)라는 단어인데요. 활을 쏘았는데 과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원래 가야 할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물고기가 가야 하는 곳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중간에 미끼에 유혹되어서 낚이면 강태공의 그물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가 나옵니다. 이제 이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둡니다. 이것을 죄가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성'이라는 말은 죄가 완전히 자라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어떤 일련의 과정이 그 주어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고, 태아가 다 자라 완숙한 형태를 가진 성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텔레오(τέλειω)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내의 결과로 온전한 모습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온전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망을 낳는다' 여기에서 '낳는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죄를 낳고'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포퀴에이'인데요. 죄를 낳는 것(τικτεῖ)을 나무에서 열리는 작은 열매라면, 이 '아포퀴에이'는 더 크고 장성한 괴물 같은 것이 썩 하고 나오는 의미입니다.

Move-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합니다. 16, 17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

'속지 말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입니다. 무엇에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걸까요?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미혹이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쌓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잘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 시험을 받아 인내함으로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유혹을 따라 죄를 품어 그 죄가 온전히 자라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인데, 그 시작과 과정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이 죽음을 낳는 과정임을 모르고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게 될 수 있기에, 지금 야고보는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다음 17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이 선물은 원하면서도, 정작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서 ‘빛들’이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처럼 빛을 내는 천체를 가리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천체의 속성과는 구분되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체는 변합니다. 태양도 다릅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지는 해의 크기도 모습도 다르고, 열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모습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하루 종일 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반절을 먼저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분이 뜻을 품으시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시어,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거룩한 뜻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기에서 품었다는 말은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에서 잉태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야고보의 대조를 보세요. 사람이 욕심을 품어 시험에 들었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자기의 욕심을 따라 (품어) 죄를 지었고.....그 죄가 쌓여져서....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그 뜻을 따라 우리를 품으셨고....진리의 말씀으로....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이 대조를 보세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사망을 낳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말씀으로 낳아야 할 것은 사망의 반대말인 의와 생명이어야 맞지 않

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들이에요. 잘 보세요.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시험에 들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지 말고, 욕심을 잘 다스려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 생명이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이것이 21절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전에는 황무지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생명을 잉태한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심겨 있어요.

Move-

21절을 보세요.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더러운 것(휘파리안)'이란 옷이나 몸이 흙탕물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 즉 먼지나 때를 말합니다. 반면에 '넘치는 악 (페르세이아)'이란 그 당시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영적인 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 두어서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 즉 마음속에 숨겨진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내어버려라.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을 보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심어진 말씀,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심상치 않아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인데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숙하고 자라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생명체는 배아 상태로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지닙니다. 하지만 유전자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전혀 다른 개체가 됩니다. 도마뱀의 유전자가 있으면 도마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유전자가 있으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 태어날 때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 DNA(유전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렇게 중생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흠어져 있어요. 그들 속에는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원히 있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은 심겨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어서 이제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 쓰인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베풀어진 것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나아가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함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하게 여겨 의심하거나 맞서지 않는' 태도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Move-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온전함이란 행함과 연관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천은 안 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나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실천은 안 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어서 좋은 생각 갖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옮겨져야 좋은 것이지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어지는 23절부터 보시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에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울은 청동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청동거울은 동판을 갈고 닦아서 만든 거울입니다. 보이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형체만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곳을 바꾸려 하지 않으려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나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았으니까'라며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행한다, 실천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행동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즉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단어가 '포이오(ποιέω)'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언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결국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자라나서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Move-

이어지는 26,2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예배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준수, 의무수행에 세세한 주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습을 보면 경건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언행이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참된 경건은 자기 허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중 수학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학책은 대개 앞부분에 문제가 있고, 뒷부분에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 이유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답이 맞는지 맞추어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지 않고 답만 보고 그 답을 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답은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푼 것은 아닙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언제 그 정답이 자기 것이 되는가 하면 실제로 풀어서 뒤의 정답과 같은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은 자기 답이 됩니다. 단순히 정답을 안다고 그것이 자기의 실력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세월이 가면서 정답은 알아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답을 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것이 정답입니다. 실천해야 실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의 변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 온전함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